

# 바이오 도전한 오리온... '제2의 신화' 쓰나

(초코파이 신화)

부진 사업 정리 후 신사업 적극 육성  
중계약기업과 바이오 합자법인 체결  
결핵백신·대장암 진단키트 기술 협약  
중국 유통 인프라·높은 인지도 강점



담철곤 오리온 회장

바이오에서 제2의 초코파이 신화를 세울 수 있을까. 오리온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초코파이라는 든든한 글로벌 스테디셀러가 있고, 브레이크아웃이 모델로

나선 포복집도 효자상품 대열에 오르는 등 주력인 제과가 호조인 상황에서 신사업 개발에 적극 나서서 것이다. 특히 최근 바이오 사업에 기업 역량을 집중해 주목 받고 있다.

## ● '잘 나갈 때 미래 위기를 대비'

실적만 보면 요즘 오리온은 잘 나간다. 2월 공시자료에 따르면 오리온은 2020년 총 영업이익이 37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상승했다. 올해도 6월 발표된 1분기 영업이익이 1019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4분기의 850억7100만원보다 168억여 원이나 늘었다. 매출 역시 6020억2100만원으로 11.5%나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법인도 고르게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잘 나갈 때 미래 어려움을 대비한다'는 말처럼 제과와 같은 특정 사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경영 리스크가 높아지고, 기업 미래를 장담할 수 없



오리온 홀딩스가 지난해 10월 진행한 중국 국영 제약기업 산둥루강의약품과의 바이오 합자법인 계약체결식. 허인철 오리온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평신 산둥루강의약품 이사장(왼쪽부터), 서울 용산의 오리온 본사 건물 전경.



사진제공 | 오리온

는 현실적인 고민이 바이오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바이오는 현재 신사업을 담당하는 허인철 오리온홀딩스 부회장이 꼽은 3개의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다. 2014년 오리온에 부임한 허인철 회장은 건설 등 부진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대신 간편대용식, 음료, 바이오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리온홀딩스는 2019년 9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제약·바이오 사업을 추가했고, 이어 2020년 10월 중국 국영 제약기업인 산둥루강의약품과 산둥루강하오리요우 생물기술개발유한공사(이하 산둥루강하오리요우)를 공동설립하면서 본격적인 바이오 사업에 나섰다. 허인철 부회장은 당시 합자법인 계약 체결식에서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바이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식품·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4월 국내 백신기업 큐라티스와 청소년·성인용 결핵백신 기술 도입을 위한 MOU를 맺었고, 5월에는 암 조기진단 전문기업 지노믹트리와 대

장암 진단키트 기술도입 본계약을 체결했다.

## ● 막강 中 유통 인프라... 실속있는 초반 전략

오리온의 바이오 전략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보다 중국시장을 겨냥했고, 신약 개발보다 '바이오 유통 플랫폼'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바이오 시장은 무려 160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진입장벽이 높기로 악명이 높다. 이미 한화, 롯데, CJ, 아모레퍼시픽 등이 도전했다가 쓴맛을 보았다.

하지만 오리온은 이들 기업에 비해 나름 자신하는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다. 바로 막강한 중국 유통 인프라와 높은 브랜드 인지도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동양제과 사장 시절부터 중국시장에 주목했고,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자 바로 베이징에 사무소를 냈다.

그로부터 30년에 걸쳐 중국시장을 개척하고 관리해 지금은 중국법인 매출이 국내법인보다 더 높은 정도다(2020년 중국 매출 1조976억원, 국내 매출 7524억 원). 초코파이 등 히트상품을 통해 구축한 브랜드 파워도 상당하다.

사업 초기에는 성급한 신약개발보다 국내외 기업과 협업을 이들 제품을 중국 시장에 유통하는 바이오 플랫폼에 집중하는 것도 업계에선 기업의 현실적인 역량을 감안해 세운 실속있는 전략으로 평가한다. 또한 사업 첫 분야로 대장암과 결핵을 고른 것도 중국 시장 특성에 맞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중국의 대장암 환자는 미국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많고, 매년 28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핵도 잠재보균자가 3억5000만 명에 달해 중국 정부가 주요 전염성 질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오리온홀딩스는 앞으로 중국 합자법인 산둥루강하오리요우를 통해 국내서 제휴한 큐라티스의 결핵백신 기술에 대한 현지 임상 및 인허가를 추진하는 등 상용화에 나선다. 지노믹트리의 대장암 진단키트도 중국 임상시험 및 인허가를 위한 기술 지원을 받는 등 상용화까지 협력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명지병원 "아프리카·중동 교민 원격 진료"

### 지역 한인회와 지정병원 협약 체결

명지병원이 해외 동포들의 원격진료를 포함한 토털 라이프헬스케어에 나선다. 명지병원 MJ버추얼케어센터는 아프리카·중동 한인회 총연합회와 건강검진, 온라인 원격진료상담을 포함하는 '지정병원 서비스 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앞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한인동

포들은 MJ버추얼케어센터의 전용 모바일 앱을 플랫폼으로 스마트폰 위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원격진료와 건강상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방문시 명지병원에서의 대면진료와 종합건강진단센터 건강검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버추얼케어서비스가 타 지역보다 더 질실한 아프



아프리카 중동한인회연합회 김점배 회장(왼쪽)과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

리카와 중동지역 15만 교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여서 보람이 크다"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문을 연 명지병원 MJ버추얼케어센터는 그동안 전용 앱 'MJ Virtual'을 플랫폼으로 미주 지역 한인회 동포들과 해외 주재 상사원 등에게 토털 라이프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협력 병원과 요양병원 및 요양원 지원, 가정간호서비스 등에서도 버추얼케어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27일(목) 음력: 4월 16일 문: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대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실속이 있는 날이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조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쉬운 날이다.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게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절치부심 준비해둔 자는 의외의 횡재수도 있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엔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망신일에는 실수를 자주한다.	샘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면서 번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돼지띠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날이다.	나의 운기가 쇠해서 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출세하려 하지 말고 소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앞서거나 서두르지 말라.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손조롭게 해낼 수 있는 때이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상승일로에 있다.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다지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울 때이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장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의 기운은 인간의 감각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 자제하라.

# 건강

스포츠동아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15

## 프롬바이오, IPO 앞두고 생활용품 라인 강화 자체 브랜드 매스티나 통해 매스틱검 함유 제품 출시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프롬바이오는 자체 브랜드 매스티나를 통해 프리미엄 라이프케어

제품을 출시했다. 매스티나는 안티에이징 솔루션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로 지난해 론칭했다. 이번에 내놓은 라이프케어 제품은 프리미엄 매스틱스 치약, 매스틱스 수소 비누, 매스틱스 헤어 볼륨 샴푸, 매스틱스 헤어 볼륨 트리트먼트 등 4종이다. 자사의 개별인정형 원료인 매스틱검을 수용화한 수용성 매스틱검을 함유했다. 그리스 키오스섬에서만 자라는 매스틱검은 한 그루당 1년에 최대 180g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원료다.

매스티나 관계자는 "기존 안티에이징 화장품 라인에 이어 치약, 비누, 샴푸, 트리트먼트 제품 등 생활용품을 통해 일상에 건강한 습관을 제안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롬바이오는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4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매스티나의 신제품 출시로 주력 사업인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물론 생활용품 부문까지 강화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은 병원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대상으로 '소아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토탈케어 C-HA 서비스'를 실시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생후 2주부터 만15세까지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주기별 건강체크 사항을 알려주는 육아정보 프로그램이다. 아이의 생애 주기에 따른 체크사항, 또래들과의 성장속도 비교, 아이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차례 등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한다. 분당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분당차여성병원(1577-4488)으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 365mc, 지방흡입 마취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365mc네트웍스는 미니소프트와 '지방흡입 마취안전 클라우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365mc 지방흡입 수술 고객의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연구 개발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365mc 지방흡입 마취안전 시스템은 전문의 모니터링에 인공지능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클라우드를 활용해 서울, 대전, 부산, 인천, 대구 등 전국 365mc 지방흡입 병원의 마취 현황을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취합해 분석 관리할 수 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오늘의 날씨			27일(목)		
서울 60/20	인천 60/20	춘천 70/70	15 21	15 19	14 21
강릉 30/60	대전 60/60	전주 60/60	17 22	15 21	16 21
광주 60/60	대구 70/60	부산 60/10	15 23	14 25	15 22
창원 60/10	제주 60/10	지역	15 24	18 24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86호**

발행인: 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성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